

사 설

54가구 145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거진을 자산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모내기 등으로 한창 바쁜 이 마을이 요즘 인근에 위치한 거진하수처리장으로 현내면 오페수가 유입되는 문제 때문에 들쭉거리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6일 현내면 오페수 자산리 유입 결사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고성군청 거짓 약속 자산주민 분노한다' 등 10여개의 플래카드를 도로변에 내걸었다. 급기야 황종국 군수가 지난 17일 주민들을 만나 2시간 가량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진정시켰으나, 도로변에 내건 플래카드는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가동중인 거진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감수하겠지만, 현내면 오페수까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사를 중지하던가, 아니면 이주를 시켜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집단 반발하는 이유는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내면 오페수를 거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로 결정한 사

이며, 당시 거진을 이장단협의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산리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당시 동의한 이

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상에 시설이 세워졌으며, 날씨가 흐리면 어김없이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내면 오페수 유입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던 주민들이 뒤늦게 원망을 들고 있다. 황 이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 간에 불신의 골이 생겨 마을이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지역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져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도 큰 문제다. 플래카드가 내걸린 지역은 7번 국도변이어서 수학여행단 관광버스는 물론 거진 이북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지나치는 길목이다.

고성군은 하루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자산리 문제 서둘러 해결해야

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이 더욱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황이순 이장은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니 현내면 오페수를 유입하기 위한 공사였다"며 "주민들 몰래 공사를 추진하니 가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성군은 현내면 오페수의 거진유입은 이미 2006년에 결정한 사안

장단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이나 특단의 보상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주민들은 또 현재 가동중인 거진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주민들은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조선14대 선조는 이순신을 어떻게 보았는지? 節度使(절도사) 이일, 경상우수사 원균 그 일파를 무엇으로...게다가 원균은 庸勳(옹훈; 멧뭉한 공적) 수훈(受勳)까지이 란 말이 이러한 일에서 출연된 말이라고 생각되어 필자는 신뢰한다.

25년부터~31년 왜란을 격은 선조의 치적보다는 業績(업적)이라고 보면 어떨까?... 敗將(패장; 전쟁에 진 장수) 원균 도망하러다 이원용의 권고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도움으로 적을 깨트리니 그 공적은 누구일가?

선조17년 충무공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용맹한 기가 있어 전쟁놀이엔 대장 노릇 하였었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동네해결사 또는 훌륭한 재능개발하고 연마하는 義義大丈夫(의의대장부; 의로움 다운 큰 어른)이었다.

무과에 급제 후 순신은 왜란을 예견 대비한 점은 有備無患(유비무환 ;환난에 대비)이요 국방증강 요청을 거절당하고 순신은 홀로 싸워 60여명을 탈환하였던 공훈을 세웠으나 -절도사 이일은 순신의 길을 막는 拙丈夫(졸장부; 비열 비겁한 자), 적은 병력으로 胡人(호인;만주인 외국인)이 친입 양민학살당하니 그 책임을 순신에게 돌려 사형에 상소했으나 무죄로 판명 되었으니 수치스러운 일, 李珣(이광)의 발탁은 때와 같은 눈, 유성룡의 거시 안 등용으로 길이 트였고, 先見之明智將(선견지명지장;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장수)이라 군사 훈련 거북선 창조 水軍統制使(수군통제사)로 임명된 制海權(제해권; 해상을 지배 장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즈음하여

악한 권장 악한 권한)을 가진 탁월한 전술가 순신을, 원균과 그 일파는 시기와 謀陷(모함; 남인과 북인에 간교한 꾀로 곤궁에 빠뜨림) 일본의 이간질(간첩의 이간)등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그가 왜적에게 잡혀 죽으니 그의 말로를 대변해 주고 있다.

鄭琢(정탁)은 의인의 눈? 이름이 말해주 그대로 義人(의인; 의로운 사람) 덕을 닦아 생명의 恩人(은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權慄(권율)장군 麾下 白衣從軍(휘하 백의종군; 소속되어 벼슬 없이, 군인 아 니면서 전장에 참전함) 그 정신 비할 대없 다.

李舜臣(이순신)은 임지부임 도중, 모상 소식들은 인간적 순신의 심상은? 헤아릴 수 없다. 임진왜란에 閑山島大捷(한산도대첩; 한산섬대승리)- 李舜臣, 胥州(진주대첩; 싸움의 큰 승리)- 金時敏(김시민 장수), 幸州山城대첩(행주산성)- 權慄(권율 장수), 아 ~ 지극한 충성- 백절불굴정신, 숭고한 인격-존중하여 받들고, 위대한 통솔력-그 能力鼓舞讚揚(능력고무찬양; 권능에 복치고

춤추고 칭송하는 즐거운 노래)하도다. 잊을 수없는 그날들을 기리자! 선조는 하루 넘기기가 1년 같은 질병으로 재위기간 반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사망 하였기에...

현대국가 智將(지장; 지덕을 갖춘 장군)에게도 바람이 강풍이나 미풍이 일까? ...

'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유경천위지 지재 하고 보천욕일지공 하니; 충무공 이순신을 평하여 천하를 좌우하는 재능으로서 하늘과 땅에 찬란한 공적이 빛나는 태양이로다)을 명나라 陳璘(진인)장수의 평가하였음은 바른 눈! 聖雄(성웅; 성스런 영웅) 이순신은 옥포해전에서 왜함선 30척 격파를 비롯하여 해전11번을 승리로 이끌어 총243척을 왜 함선을 격침시키고 제해권을 장악,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에서 승리로 이끌어 '왜군을 물리쳐 철수하게 하고 최후 순간까지' 애국애족심은 오늘의 우리에게 호국정신을 일깨우게 하는 귀감이 된 동시 실행으로 옮겨질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도요포미(풍신수길)는 몸은 티끌로

변했고 혼은 지옥 불에서 阿鼻叫喚(아비규환; 지옥 불에서 몸부림치고 고통을 참기 어려워 아우성침) 하고 무엇을 할까? 몸부림칠까?...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피맺힌 시악한 먼지로...

이이 선비의 기상이 십만양병설의 예언과 有備無患의 나라사랑은 선각들의 공통점 이다. 이제우리는 조국과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을 모으고 서로협력이 실천의 지혜로 옮겨져야 된다는 수훈을 다시 한 번 새긴다.

우리 고추(辣淑;달숙)의 원산지 남아메리카 열대지방에 분포된 달숙의 효능을 알아봅시다.

성분으로 카프사아신 크립트산틴 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다는데 효능은 6)신경통, 마비증, 몸이 風(바람) 寒(차고) 濕(습기)으로 浮氣(부기; 부음)엔 빨간 고추 1.8kg 잘라 형 형겉으로 썬 뒤 좋은 배갈 35~44도 정도나 소주에 담가 밀봉1개월간 두었다가 식전마다 소주잔으로 1번씩 계속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장쇠약증 신진대사 소화불량 食慾增進(식욕증진) 寒痢(한리;배가차고설사) 惡寒(오한; 추고 떨릴 때 고추 술을 데워1~2잔을 복용 또한 갑자기졸도 사지가 차갑고 인사불성일 때 증세부위에 고추기를 바른다.7)개에게 물려 상처엔 즉시고 추1개 찢어서 또는 가루를 침에 섞어 바른면 효과가 있다.(자연식품잡조) 신비의 약재 달숙을 귀하게 생각하고 편이하게 사용하자!

◇편집국에서

○...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가 입학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에 제2캠퍼스 개 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경동대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받아들 여진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를 확대보도해 마치 경동대가 고성군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해 아쉬움을 남겼 다. 고성군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 경동대가 제 2캠퍼스 개 설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 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자.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